

1. 말씀묵상(QT)은 왜 해야 하나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펼칠 때 가장 먼저 이런 기대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열망이 너무 커진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는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나 한 단어가 유난히 마음에 와닿으면,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삶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내게 와닿은 부분만 붙드는 것은, 자칫 말씀을 듣기보다 이미 품고 있던 생각을 말씀으로 확인하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묵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씀묵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알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는 길을 건널 때마다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과 가치관을 알게 되면, 매 순간 묻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시간 부모와 관계를 맺으며 부모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특별한 지시를 기다리기보다, 이미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다양한 상황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은 이러한 모습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매일 새로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 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점점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까요?

그 답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뿐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본문보다 내 마음이 보입니다. 왜 이 말씀이 불편한지, 왜 어떤 구절만 붙잡고 싶은지, 왜 특정한 답을 원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 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 교만과 집착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찢어 찢개어 드러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감추어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말씀묵상은 단순히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가고,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 간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삶의 지침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 가며, 세상 속에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나를 조금 더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참된 묵상입니다.

말씀묵상은 하루의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알아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말씀은 우리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갑니다. 이것이 말씀묵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말씀을 읽는 나의 기대와 태도는 어떤가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나 '내가 원하던 답'만 찾으려 했던 경험이 있나요?

→ _____

- 글에서는 묵상의 목적이 '오늘의 정답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아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나 마음을 새롭게 깨달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 _____

-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말씀을 읽다가 나의 욕심, 두려움, 교만, 상처 등을 보게 되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최근 말씀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거나 실천하게 된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아 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